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오늘의 기도 ;

하나님 이땅이,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동안 교만했던 것, 험뜯고 싸웠던 것,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인간의 무능력을 깨우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복종하기를 다짐합니다.

부디 이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더 강하게 붙들어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기를 다짐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죄악을 이기며, 부조리를 이기며, 미움을 이기며, 무관심을 이겨내는 것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통 속에 죽어간 이땅의 어린 학생들과 남겨진 친구들, 그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삶을 헤쳐나가는 지혜를 크게 허락해 주소서.

고난 앞에서 더 건강하게 하시고, 더 강하고 성실한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주제: 부활            제목 : 더디 믿는자를 도우시는 주님  
성경: 누가복음24장13-35절

13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이십오 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14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15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18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19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

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20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 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1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22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23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24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25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28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29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30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2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33 곧 그 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34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35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  
신 것을 말하더라 (눅24:13-35)

사람은 더디다.

사람은 자기 욕심에는 매우 빠르나, 남을 위한 희생은 느리고, 하나  
님을 향한 열정은 더디다.

이 순서가 반대인 사람은 복이 있다.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은 우선순서가 하나님인 사람이다. (복을 받는 사람>은총>은혜>공  
홀) (복이란 면류관-영광에 해당함, 질병을 이기는 건강, 문제를 해  
결하는 하나님의 지혜, 재물, 다복한 식구들, 대를 잇는 일터)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6:33)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디다. 오늘 본문말씀에 나오는 두 사람  
도 매우 더딘 사람인데 예수님은 이들이라도 증인으로 사용하기 위  
해서 이들에게 은총을 베푸셨다. 더디기로 알려진 사람들의 증인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

엠마오는 지금은 사라진 지명이다. 예루살렘에서 25리니, 점심먹고  
천천히 걸어가면 이른 저녁나절 쯤 도착한다.

두 사람은 열두제자는 아니나,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  
로 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드물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왜  
냐면 전혀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도 못했기 때문이다.(아마도 나  
사로를 살리신 것과 부활과의 연관성도 가늠하지 못했으리라.)

이 두 사람 또한 대부분이 민중들이 그랬듯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믿었다.(정치적 독립, 다윗의 왕권 복원) 그러나 여러  
가지 단편적인 증거들은 보이는데 딱히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없  
어 헤매고 있는 중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그들은 결코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같이 길을 걷게 되리라고는 상상

하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가 다른 엉뚱한 사람인줄 알았다.

그러나 대화를 하는 도중 신기하게도 자신들의 의문들이 술술 풀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사실이 가슴에 뜨겁게 와 닿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들에게 구약성경을 풀어주시는 분이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축하하시며 떡을 떼시는 모습을 볼 때 순간적으로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다.

이들은 비록 더디 믿었지만, 그 후로는 뜨겁게 믿게 되었고,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달려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당한 일을 증거하였는데, 마침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증언하게 되어 서로가 서로의 경험에 증거가 되어 확고한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

기독교의 부활신앙은 이처럼 짝 짜여지고 흔들리지 않는 구조로 완성되어 갔다.

그러면, 이 두 제자에게 강력한 확신을 주게 된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였을까? 그 확신은 구약성경을 풀어 주셨을 때 일어났다.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예언들. (그 중 주로 신약성경에 인용된 구절들을 중심으로 몇 개)

-구약의 예언들은 대부분 예언자들이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얻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 표현이 자신들의 삶과 연관된 경우가 있다. 또는 데자뷰현상처럼 기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역사적인 예수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것도 계시된 것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들이다. 이렇게 구약성경을 통해서 확인된 계시들이 유독히 짧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일치 되었으니 유대인들은 충분히 성경만으로 증거가 되었다.

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3:15)

18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창18:18)

10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창49:10)

7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사9:7)

2 베들레헬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5:2)

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7:14)

15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 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렘31:15)

1 전에 고통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사9:1-2)

15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신18:15)

3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53:3)

9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슥9:9)

특히 세례요한의 증언,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

이로다’은 구약성경에 나타난 유월절과 속죄양을 통한 대속적 죽음의 성취를 계시한 것이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1:29)

그러므로 이처럼 더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강력한 신앙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디 믿는 것을 아시고 그 믿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기초작업을 마치신 것이다.

우리는 더디 믿었으나, 그러나 그만큼 다져지고 확신 가운데 서게 될 줄 믿는다.

초대교회가 이런 확고한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 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든든한 믿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하게 될 것을 소망하자. 아멘.

## <찬양예배>

주제: 회개    제목: 민족을 위한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22-30절

22 솔로몬이 여호와와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23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24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25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26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27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28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9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 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30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왕상8:22-30)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

세월호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였다.

우선 우리 인간은 너무 무능력하다는 것.

그동안 우리가 너무 교만했다는 점.

막상 재난을 당했을 때 필요한 인재를 너무 소홀하게 대우하였다는 점.

책임을 지고 성실하게 희생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감당하는 자들이 너무 적다는 점.

대기업 위주의 인재, 사자로 끝나는 인재에 너무 치중하였다는 점.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티시느라 너무 힘겨우셨을 거라는 점.

이제는 많이 가지려는 자들이 더 겸손하며, 더 낮은 자들을 배려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점.

가지지 못한 자들도 자존심만은 지켜내야 한다는 점.

-비판하고 비아냥거리고 편을 가르고, 관리들이나 통치자를 원망하는 일은 무법자들이나 하는 짓. (당시에는 시원할지 모르나 인재는 전체적인 것이지 특정인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점. -총체적 난국.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있으면 똑같다는 점. 오히려 이런 비난하는 분위기는 나라 전체를 주눅들게 하고 아무도 희생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마귀적인 현상이라는 점. -우리 모두는 마귀에게 속고 있다.)

-그것은 나라를 망치고 가문을 멸문시키는 일이라는 점.